

YONHAP | 연합리퍼레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Cover_Story

Three wonders of **India**

■ 사진·글/김주형 기자, 협찬/인도관광청

마음의 고요와 평안, 새로운 영감

여행을 즐겨 하는 이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면 셋 중에 둘은 '인도'를 꼽는다. '인도를 넘어서야 진정한 여행가'란 말이 있듯이 인도는 여행가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다. 인도만이 가진 특별한 기운, 삶과 죽음의 공존, 다양한 삶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고요와 평안, 새로운 영감을 얻어 스스로를 경이롭게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일까, 한 번 다녀오면 다시 가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인도'이다.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땅, 바라나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바라나시(Vārāṇasī)는 너무나 잘 알려져서 인도를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면 한 번 이상 거쳐가는 곳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 여행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갠지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힌두교도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찾아가 죄를 씻는다는 영혼의 강이다. 순례객들은 갠지스 강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담은 디야(Diya)를 띄워 보낸다.



마음의 안식처, 인도 불교 성지

왔다가 가고, 떠남과 돌아옴의 반복이 인생이 아닐까. 그 안에서 고통과 기쁨도 얻게 되고, 때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정표 없이 내달아 온 자신을 발견하고 일상의 일탈을 꿈꾼다. 못다 가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와 마하보디 사원을 찾은 티베트 순례객의 표정에는 희망과 간절함이 함께 한다.





Buddhist

붓다의 발길을 좇는 영혼의 순례길

인도 붓교 성지순례는 멋지거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붓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은 고행의 길이다. 하지만 붓다가 탄생한 네팔의 쿹비니 동산 깨달음을 얻었던 보드기야, 최초로 설법한 땅 사르나트, 불법의 성지 라즈기르, 붓다가 열반에 든 쿠시나기르 등 붓다의 발길을 좇는 순례는 깨달음의 길이기도 하다. 붓교 성지순례는 불거리와 생각 거리를 모두 안겨주는 '시간 여행' 이다.

만국기처럼 펼쳐이는 마하보디 사원의 타르초

타르초는 불교적인 요소와 티베트 토속 종교적인 요소가 결합한 독특한 것발로, 바람이 불어 펼쳐일 때마다 인산대중이 있는 불경 구절들이 공기 중에 흩날린다고 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를 둘러싼 마하보디 사원에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순례객과 관광객이 정엄한 행렬을 이룬다.



Heritage 인간이 빚어낸 아름다움의 극치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은 인도 건축에도 해당된다. 인도의 건축은 화려할 뿐 아니라 매우 독특해서 세계 건축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인도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을 비롯해 델리의 후마юн 묘와 꾸뎀 미나르 등 여행자를 감동시키는 유적들이 많다.



세계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인도는 워낙 방대한 나라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만도 20여 개에 이르는 등 아름답고 빼어난 건축 유적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도 꾸뎀 미나르와 후마юн 묘, 붉은성, 자미 마스지드 등 고대 건축물이 즐비한 수도 델리를 비롯해 타지마할과 아그라 성이 있는 아그라, 하와마할과 잔타르 만타르를 품고 있는 자이푸르 등이 인도 건축 여행의 대표적인 코스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아름다운 인도 건축물은 보면 볼수록 더욱 더 매료된다. 인간이 빚어낸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Qutab Minar

Qutub Minar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꾸뎀 미나르는 붉은색 사암으로 길이 단장된 승전기념탑으로 델리 관광의 하이라이트이다. 1층은 힌두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나, 2·3층은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독특한 탑이다. 표면에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 문양도 아름답다.



Taj Mahal

인도의 조형적 아이콘처럼 여겨지고 있는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타지마할은 이른 아침에 보면 푸른색, 대낮에 보면 반짝거리는 순백색, 일몰 때 보면 석양에 물들어 선홍빛을 띠는 천의 얼굴을 지닌 예술품이다. 여기에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곁들여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인도는 수백, 수천 가지 빛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인도에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각각의 인도를 만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교통이나 숙박 등이 열악하고 불결해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환경이지만 인도와 인도인들의 순수하고 원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찾고 싶다는 이들도 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공감하지만,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내세에는 분명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불교 유적들도 볼거리지만 사원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인도 사람들은 여행자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달래준다. 천의 얼굴을 지닌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인도 여행의 붐을 일으킨 류시화 시인의 “인도 여행 중에 인도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아유 해피?’라는 말이다. 그래서 인도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문장이 ‘아즈 함 바후트 쿠스헤!’이다. ‘오늘 난 무척 행복하다’라는 뜻인 이 문장은 주문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꾸만

반복해서 말하니까,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이었다”라는 말에 동감하게 된다.

어디를 가나 ‘텐 루피’를 외치며 달라붙지만 떠나는 여행객에게 티없이 맑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과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풍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평화로운 정신 세계는 경외심마저 느끼게 한다.

인도는 눈으로 보는 여행지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여행지다.

Maha Parinirvan

인도의 불교 성지순례는 긴 버스 이동 시간과 낙후된 도로 사정, 그리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고난의 순례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운행한 성지순례 전용 열차 '마하 파리니르반' 덕분에 성지순례자의 고통이 한층 줄어들었다.



마하 파리니르반 일정

- 1일 델리 → 가야 이동, 기차에서 저녁식사
- 2일 가야 도착, 보드가야 관광
- 3일 라즈기르, 날란다 관광, 가야 → 바라나시 이동
- 4일 바라나시 도착, 사르나트 관광, 바라나시 → 고락푸르 이동
- 5일 고락푸르 도착, 쿠시나가르 관광
- 6일 네팔 룸비니 관광, 고락푸르 → 곤다 이동
- 7일 곤다 도착, 스라바스티 관광, 곤다 → 아그라 이동
- 8일 아그라 도착, 타지마할 관광, 아그라 → 델리 이동

India Information

인도 국기에는 주황, 흰색, 녹색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고 가운데에 청색 바퀴가 들어가 있다. 주황은 용기와 희생, 흰색은 순수와 진리, 녹색은 성실과 다산을 의미한다. 청색 바퀴는 법의 바퀴를 뜻한다. 국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가지처럼 인도는 하나의 형태로 그려낼 수 없는 복잡한 국가이다. 공식 언어만 16개, 방언은 800개 이상이 존재하며 종교도 다채롭다.

기본 정보 인도의 면적은 남한의 33배이고 인구는 11억 명에 달한다. 수도는 뉴델리이고 서부에는 뭄바이, 남부에는 첸나이, 동부에는 콜카타가 위치한다. 왼쪽으로는 파키스탄, 오른쪽으로는 네팔, 부탄, 미얀마,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기후는 열대 몬순형 기후로 혹서기(3~6월), 우기(7~9월), 건기(10월~이듬해 2월)로 나뉜다.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주위 여행 적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며 직항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델리, 대한항공의 인천-뭄바이 노선이 있다. 인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다양한 지역에 취항하고 있는 타이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타이항공은 방콕을 경유해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에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비자 국적에 관계없이 인도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인도 관광 비자의 발급 비용은 6만5000원이며, 입국 후 72시간 내에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유 비자는 2만 원이다. 발급 소요 기간은 2일이며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자신청서, 사진 2장이다. 현재 인도 비자 접수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티티 서비스 코리아(02-790-5672)에서 대행하고 있다.

통화 및 환전 인도의 화폐 단위는 루피와 파이사(1/100 루피)이다. 지폐에는 1, 2, 5, 10, 20, 50, 100, 500루피가 있으며 1루피는 약 23.8원이다. 암달러상보다는 공식 환전소를 통해서 환전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호텔에서라도 외화와 여행자수표를 루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음식 인도를 대표하는 음식은 카레로 알려져 있지만, 문화나 종교만큼 다양하다. 북인도에서는 주로 밀가루로 만든 로티, 차파티, 난을 먹는다. 북인도에서 밀가루 음식을 주로 먹는 이유는 이 지역

이 중등과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차파티는 밀가루 반죽을 둥글고 얇게 해서 구운 것이며, 난에는 차파티보다 고급 밀가루를 사용한다. 또한 인도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보다 육류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인도 여행정보 사이트 인도관광청 www.incredibleindia.co.kr

인도 여행 시 주의사항

1 낯선 사람의 호의는 경계한다 인도 사람들은 순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근 여행자로 가장해 마음의 벽을 허문 뒤 음식이나 물에 약을 넣어서 건네는 사례가 있었다. 일단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다리가 드러나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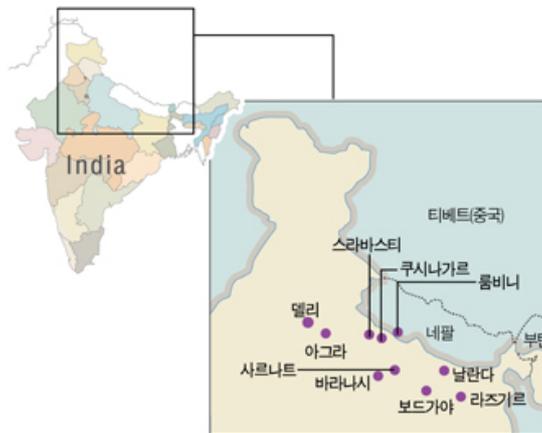
2 일부 지역 방문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는다 인도 동쪽 미얀마와의 국경 지대인 마니푸르 주를 비롯해 나갈랜드 주, 미조람 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등에 가려면 인도 내무부 외국인담당과나 외국주재 인도 대사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여름에는 수인성 전염병에 주의한다 6월 말부터 8월까지의 특히 건강 관리에 유의한다. 식수를 마실 때는 병마개가 개봉돼 있는지 확인하고, 가공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 여행을 중단하고 약국에서 일렉트랄(Electral)을 구입해 생수에 섞어 마신다.

4 기차에서는 소지품을 잘 관리한다 델리, 아그라, 바라나시 등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기차에서는 소지품을 도난당할 가능성이 높다. 깜빡 잠이 들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귀중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차표는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구입한다.

5 장거리 버스 여행 시 혼자 다니지 않는다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르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버스 여행 중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 이때 운전수가 마음이 내키면 승객의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출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버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 알아두면 좋은 인도 여행 팁



- 인도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빈부 격차도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여행 중에 생존을 위해 구걸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돈을 주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따라서 기부 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편이 낫다.

- 환전을 하거나 거스름돈을 받을 때는 지폐의 상태를 확인한다. 지폐가 찢어져 있거나 테이프로 붙여져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돈을 받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오토릭샤를 탈 때는 잔돈을 미리 준비하고 메모지로 요금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 인도 상인들에게는 일본인, 서구인, 인도인 등 3가지 요금 체계가 있다고 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 적당히 흥정하되, 상인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손해다. 어느 나라에서든 가격을 깎는 것은 여행자의 몫이다.

- 한국에 비해 인도의 물가는 저렴한 편이다. 인도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한 끼를 때우려면 대략 20~30루피만 있어도 충분하다. 패스트푸드 상점의 세트 메뉴는 100~200루피 정도이다.

[▲ top](#)